

## 세계각지에서 1 억 용사들의 “3 퇴”를 경축

2011 년 8 월 7 일,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1 억여명 용사들이 중공조직에서 “3 퇴”(퇴당, 퇴단, 퇴대)를 공포한후 세계 각지에서 경축활동을 거행했다. 이것은 중국민중들이 각성하여 중공의 정신적 질고에서 해탈한 하나의 새로운 이정비이다.



미국 뉴욕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휴스턴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 바다밑에 침몰된 문명폐허

자연계의 대변천은 우리들에게 신비한 바다 밑의 문명고적을 남겨주었다. 이러한 문명고적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류문명력사를 훨씬 초과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문명을 창조했는가? 그들의 문명은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일본 오사카 이남 20~100 피트 깊은 바다 밑에 머나먼 옛 건축물이 있다. 과학자들은 그를 “잃어버린 문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머나먼 옛 건축일것이다. 그중 평탄한 길과 네거리입구, 대형제단, 넓은 광장으로 통한 사닥다리모양의 층계, 리정표탑과 같은 쌍탑특징인 아치형천정들이 망라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바다밑에 침몰된 대단히 방대한 성시라고 한다.



약 2200 피트 범위의 쿠바 바다밑에 규칙적인 기하모양으로 쌓인 돌건축이 있다. 보건데 한 도시의 폐허와 같았다. 2003 년 한 소형잠수함이 탐측한데 의하면 이 바다밑의 신비한 유적은 아주 머나먼 옛 도시의 중심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 박해로 세상 뜬 반본여

치치할 파룬궁학원 반본여(潘本余)는 파룬궁신앙을 견지했다는 “죄명”으로 두 차례 로동교양을 받고 두 차례 (4 년과 7 년) 판결을 받았으며 중공의 모진 박해와 시달림을 받아 2011 년 7 월 17 일에 원한



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떼낸 사망증명과 병력감정은 죄다 고쳤다. 뒷사진은 반본여가 태래감옥에서 중공의 박해를 받아 복부가 부어나고 온몸에 담배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다.



### 연변박해소식

■ 지난 7 월 26 일 오전, 훈춘림업국 파룬궁학원 황가진(黃家珍)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연길시서산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3 월에 흑룡강 파룬궁학원 류금상(劉金祥)은 청교령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지난 7 월 27 일 오전에 청교령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정하여 억지로 4 년판결을 내렸다.

■ 지금 연길시에서 파룬궁학원들을 붙잡아서 세뇌반을 꾸리고 있다.

■ 지금 파룬궁학원 박금화(朴金花)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장춘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조양천 파룬궁학원 가장지(賈長芝)는 지금 룡정시간수소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다. 동수들은 발정념하여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자.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